

칼럼

임성욱 시인 · 사회복지학박사



칭찬하고 사랑하는 말 자주하면

문득 마르틴 부버가 생각난다. 부버는 인간의 관계를 '나와 너의 관계', '나와 그것의 관계', '그것과 그것의 관계'로 나눠서 설명했다.

먼저 '나와 너의 관계'다. '나'와 '너' 모두가 상대방을 인간으로 보는 단계다. 가장 바람직한 현상이다. 향기로운 꽃이 피어 나는 화원의 세상이다. 그야말로 살맛나는.

두 번째는 '나와 그것의 관계'다. 나는 상대방을 인간으로 보는데 상대방은 나를 물건으로 보는 관계다.

때문에 상대방을 인간적으로 대하면서 최선을 다하지만 상대방은 나를 이용기차여부에 따라 대하는 것이다.

때문에 이용 가치가 없으면 가차 없이 버려버린다. 그냥 버리기만 해도 괜찮다. 이에 각종 악담을 담은 누렁까지 썩어 버린다.

자신의 탐욕에 의해 스스로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아무 상관도 없는 상대방을 탓한다.

잘못된 것은 모두 '네 탓'이라고, 처참한 광경이다.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 참으로 슬픈 일이다.

그런데 정작 악행을 일삼는 당사자는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마지막으로 '그것과 그것의 관계'다. 이 경우는 피차간에 애초부터 상대방을 인간으로 보지 않는다. 오로지 물건으로만 여긴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린다. 인생막장이다.

이런 관계가 심화될수록 우리 사회는 아귀의 세상이 되어간다. 우선은 자신이 이익을 보는 경우도 있었지만 결국 그 피해는 모두가 보게 된다.

왜냐하면 그렇게 부적인 방향으로 형성된 사회 속에서 악행하는 자 자신은 물론 그 가족까지도

살기 때문이다. 사회가 함락해짐수록 그로인해 형성된 집합자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들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향해 각종 범죄를 저지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선은 선으로 들고 악은 악으로 돌 수밖에 없다. 때문에 피차간에 불필요한 욕심은 버려라.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나와 너의 관계' 일지라도 '그것과 그것의 관계'로 전락되어 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왜 어부를 불렀을까. 어부는 자기 것이 없는 사람이다. 갈릴래아 호수도 자기 것이 아니고, 그 안의 물고기도 마찬가지다. 자기가 잡기 전까지는 여하튼 먼저 그물을 버렸다. 그 다음에는 배를 버렸다. 마지막으로 가족을 버렸다.

물론 그렇게 다 버렸으면서도 무엇이 자신의 스승인 예수를 배반했다. 인간적인 욕망을 모두 잡

재울 수는 없었기 때문일까. 현존하는 예수시대에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보이지 않는 예수 시대인 오늘날은 어떻겠는가. 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다.

하지만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최소한의 도덕은 지켜야 되지 않을까.

'자신의 잘못을 남에게 덤터기 씌우지 않기', '잘되면 내 탓, 잘못되면 네 탓 않기', '달면 삼키고 쓰면 뱉지 않기', '자신은 배 풀지 않으면서 무한정 상대방이 해주시기를 바라지 않기', '없는 데서 상대방 험담하지 않기', '등이라도 모로코 숙면에 험담은 세 사람을 죽인다고 했다.'

첫째는 험담하는 자, 두 번째는 험담을 듣는 자, 세 번째로는 험담의 대상자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가 험담이나 증상모래에서도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 같다.

험담은 머릿속에 있을 때는 자신이 조종할 수 있지만 세지 허를 통해 입 밖으로 나가는 순간부터는 그 말이 자기 자신을 조종한다.

때문에 신중하게 처신해야 한다. 선의 순수한 구조를 형성해 보자. 칭찬하고 사랑하는 말을 자주 하면 좋은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길지 않은 인생. 예쁘고 향기롭게 꾸며가 보면 어떨까.

社說

산업안전법 위반 엄히 다스려야

지난 5년간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을 어겨 법원 판결을 받은 사례들을 분석한 결과, 10명 중 9명꼴로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법원이 산안법 위반 사건을 '솜방망이' 처벌로 끝낸다는 비판이 많았는데, 이런 행태가 판결 분석을 통해 수치로도 확인된 셈이다. 가벼운 처벌 탓에 재범 비율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신형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판결 분석 연구' 결과를 보면 2013~2017년 5년 동안 산안법을 위반한 피고인의 90.7%가 집행유예(33.4%)와 벌금형(57.2%)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징역·금고형을 받은 피고인은 단 2.9%에 그쳤다. 이번 연구는 한국비교형사법학회가 2013~2017년 전국 1심 법원에서 선고된 전체 산안법 위반 사건 3405건 중 1714건(50.3%)을 대상으로 최종 판결 내용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최근 판결이라 열람서비스 등록이 안 돼 수집이 불가능한 사건은 제외됐다.

분석 대상 사건 가운데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은 66.4%(1138건)에 달했지만, 정작 피고인의 평균 구금 기간은 1년이 채 안 됐다. 지난 5년 피고인들의 평균 징역 기간은 10.9개월이었고, 금고 기간은 9.9개월에 불과했다. 5년간 평균 벌금액도 자연인은 420만6600원, 법인은 447만9500원이었다.

연구진은 이번 조사 결과와 관련해 법원이 산안법을 어겨 노동자를 사망케 하는 범죄를 통상 '과실'로 본다며 지적했다. '안전보건조치를 하지 않으면 노동자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걸 알고도 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법원은 습관적으로 '실수였다'는 면죄부를 주고 있는 셈이다.

법원의 이런 '솜방망이' 처벌은 결과적으로 높은 재범 비율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중시해야 할 것이다.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신문으로 배우는 千字文

高冠陪輦

高冠陪輦

▷ 뜻: 높은 관을 쓰고 연을 모시니 제후(諸侯)의 예로 대접(待接)함.

대표이사·회장 김평호
발행·편집인 겸 부사장 최산순
편집국장 강서원

湖南新聞

대표전화 (062) 224-5800
편집국 (062) 222-5547
팩스 (062) 222-5546
광고국 (062) 222-5544

본사: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광주시 동구 학동 633-3번지 정도프라자 5층)
서울취재본부: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167-16
Tel (02) 2238-0003

1946년 3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의견을 환영합니다"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222-5548

자전거 안전사고 많은 6월, 안전모 등 착용철저 당부

취미로 자전거를 타거나 출퇴근을 위해 자전거를 타는 라이더들 사이에서 꾸준히 늘어나면서 자전거 안전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행정안전부 집계에 따르면 2013년부터 5년간 모두 3만 2천여 건의 자전거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월별로는 6월이 가장 많았다고 한다.

특히, 자전거 사고는 주로 머리 손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자전거 사고 손상 환자 가운데 외상성 머리손상이 46.6%로 가장 많았다.

이유로 자전거 사고 발생 시 안

전모 착용은 4.6%에 그쳐 대다수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작년 9월부터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는 의무적으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안전모를 착용하면 머리 다칠 확률이 높게는 92%까지 감소한다니 확실한 안전을 위해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안전모, 장갑, 고글 등 기본적인 안전 장비를 모두 착용했다면 자전거의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자전거 바퀴에 쓰인 적정 공기압을 확인하고 이에 맞게 비람을

넣어주어야 하는데 공기압이 낮으면 자전거가 잘 나가지 않고 펑크가 나기 쉽다.

너무 높으면 자전거가 지면에서 튀고 미끄러워져 사고 날 위험이 크다.

체인은 자전거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아주 중요한 부품이다. 그러므로 자전거를 타기 전에 체인이 잘 돌아가는지, 끊어지지 않았는지, 이물질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브레이크 역시 타기 전에 확인해야 한다.

처음 탈 때는 앞, 뒤 브레이크의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고 브레이크를 쥐어 잘 작동되는지 점검

해야 한다.

한쪽만 누르면 오히려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반드시 좌우 동시에 눌러 주어야 한다.

또한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간주되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이동해야 한다.

자전거 운전자들은 본인의 안전을 지키는 습관과 타인에 대한 배려를 위해 안전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아간에는 자전거 사용을 자제하거나 사용 시에는 자전거 뒷부분 또는 안전모에 식별이 쉽도록 아광 밴드를 부착하여 아간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지혜도 필요하다.

한선근 / 보성119안전센터 소방위

Advertisement for '换位思考' (Switching Perspectives). It features two women, one in a white cardigan and one in a striped sweater, with the headline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What if we switch perspectives?). The text encourages empathy and understanding, stating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 보다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을까요?' (Thinking about others once more from their perspective, won't we be more considerate and respectful?). It also mentions '당신의 작은 배려가 상대방을 미소짓게 합니다.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합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Your small kindness makes others smile. It makes the world warmer. It creates a happy South Korea).